

## 초기 기독교와 노예제

- 「빌레몬」 서에 나타난 노예 오네시모의 사례를 중심으로 -

현종환 서강대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 1. 들어가는 말

몇 년 전 일이다. 대학원 수업을 준비한 후 잠시 쉬면서 TV를 시청하던 어느 주말이었다. TV에서는 당시 인기있던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 재방송하고 있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아마 ‘관상’ 특집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영화 ‘관상’을 모티브로 삼아, 출연진들의 관상에 따라 왕에서 천민까지 신분을 나누고 자신의 바로 위 신분을 잡을 경우 상대와 신분을 교환함으로써 신분 상승을 하여, 최종적으로 왕으로 남는 자가 승리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 방식에 따라 출연자들은 과거에서 미래로 타임워프를 하게 되고 추격전은 현대를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출연자 중 하나인 노홍철이 지나가던 시민들과 대담을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 노홍철은 천민 신분 중 광대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능청스레, 마치 자신은 당신들과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는 양 무엇 하는 사람들인지를 물었다. 이에 시민들은 회사원이라 답했다. 그러자 노홍철은 다시금 회사원의 신분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자 시민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노비요, 노비.” 노비, 다른 말로 하면 노예다.

당시 나는 시민의 발언이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현대사회를 잘 풍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분명 현대사회에서 신분제는 폐지되었다. 1865년에는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유지되던 양천제가 19세기 동학농민운동을 거치며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 1801년 공노비 해방, 1886년 노비세습제 폐지, 1894~5년 신분제 폐지로 인해 노예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더해 1945년 국제연합(UN) 헌장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세계적으로 노예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노예제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무한도전>에 나온 시민은 자신을 노비라 한 것일까?

현대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노예제가 사라지지 않았다. 물론 앞서 자신을 노비로 표현한 시민은 자본주의 사회 아래 자본을 근거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신분이 생겨났음을 풍자한 것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근거로 하지 않은 과거와 같은 노예는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아동노동 역시 노예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인신매매 또는 제3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제노동 역시 노예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까이 우리 주변에서는 몇 년 전 우리를 경악케 했던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노예는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신안 염전 노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판 노예를 소지한 사람들 역시 노예제가 잘못임은 안다. 단지 그들의 행위가 노예를 부리는 행위가 아니라고 변명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인 나는 노예와 관련해 어떤 근거로 반대할 수 있고 또 반대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이런 의문을 토대로 이 글에서 위와 같은 제목의 탐구를 시행해 보고자 한다. 흥미로운 점은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기독교가 노예제 폐지에 전혀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많은 학자들의 보고가 있었다는 점이다. 과연 학자들의 주장처럼 기독교가 노예제 폐지에 무력했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가? 또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의문을 풀어보기 위해 노예제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대응 중 특히 「빌레몬」서에 집중하고자 한다. 「빌레몬」서의 내용이 도망 노예 오네시모에 대한 처우를 다루고 있기에 나의 의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으며, 여러 교부들이 바울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기에 초기 기독교의 일반적인 대응을 살펴보기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 이론을 살펴보는 까닭은 그의 이론이 노예제를 정당화하려는 최초의 정교한 작업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이후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의 노예제 정당화 작업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로 로마의 노예제의 특성과 해방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빌레몬」서의 오네시모의 사례에 대한 바울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노예제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 2. 고대 그리스의 노예제

노예는 어떤 존재일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남의 소유물로 되어 부림을 당하는 사람. 모든 권리와 생산 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팔리던 노예제 사회의 피지배 계급”<sup>1)</sup>으로 정의되어 있다. 사전에서 정의된 것처럼 노예란 스스로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물로 타인에 의해 생활여탈이 결정되는 인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예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랬을 수 있으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노예의 존재 여부는 기원전 3,000년 경 수메르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자의 발명 및 여러 고고학적 유산을 통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노예의 기원은 수메르 문명까지가 한계인 것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 노예는 대체로 전쟁 포로였으며, 이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등에서도 노예의 존재가 확인된다.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등의 문명에서 노예의 존재가 확인되기는 하지만, 노예제 사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노예제 사회란 노예에 의해 사회가 유지되던 사회를 말하는데, 들라캉파뉴에 따르면 최초의 노예제 사회는 고대 그리스 사회로 그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자 2021년 5월 11일 18시 53분. 검색항목 : 노예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B%85%B8%EC%98%88>

중에서도 6세기 이후로 한정되며, 고대 그리스인들은 “노예제도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 제도”를 만들어냈다.<sup>2)</sup> 즉, 고대 그리스는 폴리스 내에서 자유민들이 정치, 법, 방위와 관련된 활동에만 관여했던 데 반해, 노예는 가사, 가내 수공업, 공업, 농업 등등 공동체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사회가 유지되었다. 이런 점에서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예술, 나아가 철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이 노예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sup>3)</sup> 한센(Hansen)에 따르면 기원전 4세기 말 그리스 아테네의 시민의 수는 약 3만 명 정도이고 거류 외국인은 4만 명, 여성과 아이의 수는 약 3만 정도라 한다. 그리고 노예의 수는 여기서 보고되지 않았으나 전체 구성원의 수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산한다는 점에서 고대 그리스 사회가 노예에 의해 유지되던 사회였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학자들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의 노예들은 자신의 고유 이름과 성을 가질 수 없었으며, 생물학적 차원에서는 인간으로 간주되지만 상징적 차원에서는 주인에 속한 재산에 불과하다고 여겨졌다. 자유인이라면 그리스인뿐만 아니라 거류외인도 노예를 소유할 수 있었으며, 노예는 주인의 집에서 살았고 도주시 달군 쇠로 낙인을 찍는 등의 중벌을 받았다. 또한 노동에 대한 보상도 없었으며 주인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될 수도 있었다. 더불어 소유권과 법인격도 없었는데, 다만 종교적 차원에서 신들의 분노를 살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은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5)</sup>

그런데 초기 기독교의 노예제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는 이 글에서 왜 시간의 차이가 있는 고대 그리스 시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살펴봐야 하는지가 의문시 될 수 있다. 더욱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저작의 전승 과정에서 단절이 있었고 전설에 따르면 기원전 1세기 로도스의 안드로니코스에 의해 저작이 편집되었기에 기원후 1세기 기독교가 발흥하던 시기에는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질문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의 전승 과정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반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 고대 그리스 사회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살펴보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 까닭은 고대 그리스가 노예에 의해 유지되던 최초의 사회였기 때문에 기원후 1세기 무렵 로마의 노예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 이론은 최초의 노예제 이론일뿐만 아니라 그의 철학에 있어서 독특한 생각이라기 보다는 당대 지식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6)</sup> 로마가 그리스 문화를 흡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식인들의 생각 또는 선입견

2) Christian Delacampagne(2002), *HISTOIRE DE L'ESCLAVAGE*, 하정희 옮김(2015), 『노예의 역사』, 고양시 : 예지, 61 참조.

3) 회페에 따르면 아테네 노예들의 경우 스파르타 노예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스파르타 노예들의 경우 비록 토지 소유와 법적 권리에서 배제되고 주인에게 세금을 낼 의무를 갖기는 했지만, 적어도 고정된 장소에서 계속 살 수 있었다. 반면 아테네 노예의 경우에는 주인에서 또 다른 주인에게로 팔리는 일이 가능하여 한 곳에 거거할 수 없고 고향이 없다는 점에서 더 열악했다고 할 수 있다. 회페(2019), 342-3 참조.

4) Hansen(1999), 53-4 쪽 참조.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당시 아테네의 인구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기에 상당 부분 추정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원전 4세기 무렵 아테네의 인구 구성을 제시한 다른 연구에서는 전체 인구를 약 25만에서 30만 명 정도로 추산하였고 이 중 노예의 수는 최소 15만 명 이상으로 제시한 경우도 존재한다.

5) Delacampagne(2015), 62-5 참조.

6) Delacampagne(2015)는 그의 책 85-88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피스트 중 한 사람인 고르기아스의 제자 알키다마스의

역시 무리 없이 수용되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 이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적 노예 이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서 『정치학』에서 본성상(phusei) 노예로 태어나는 자들이 있고 그런 이들은 주인이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 개념을 보통 자연적 노예 개념이라 부르는데, 이는 그리스어 phusis가 우리말로 본성 및 자연으로 번역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 노예를 폴리스의 필수 구성 요소로 보는데, 이는 그가 구성한 폴리스가 자족적이며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인간의 행위나 다른 여타의 것들에도 그러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찰에 따르면 모든 공동체 역시 좋음을 목적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공동체들 가운데 최고이자 다른 여타의 공동체들을 포괄하는 공동체를 폴리스로 규정한다(Pol 1251a1-6). 이와 같은 폴리스는 복합체로서 그것의 하위 구성 요소로 개인, 가족, 마을을 갖는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를 가정 영역에 두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가정이란 “서로 없이 살 수 없는 것들”의 필연적 결합으로, 남성과 여성, 주인과 노예로 구성된다. 남성과 여성, 주인과 노예의 결합은 그 목적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나는데, 남성과 여성은 생식을 목적으로 결합하게 되는 반면, 주인과 노예는 생존(sōtēria)을 목적으로 결합하게 된다. 주인은 자신의 지적 능력(dianoia)을 통해 앞을 내다보고, 이를 노예에게 명령한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 노예는 신체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가정 경영을 돕는다. 이 명령과 복종이라는 구조를 통해 양자가 기거하는 가정이 잘 경영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주인과 노예 모두 살아갈[생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노예와 주인의 결합이 다름 아닌 생존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노예는 단순히 노동력의 하나에 지나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소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사 노예를 대신하는 것”(Pol1252b11)이라고 말한다. 만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노동력을 이유로 인간을 노예로 삼는 것에 대한 정당화라면, 무분별한 노예사냥

---

주장을 심각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자연적 노예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노예제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고 추측한다. 알키다마스는 소피스트의 제자였던 만큼 상대주의 노선을 표방하며 기존의 관습을 거부하고자 하였다 전해지는데, 그의 관점을 따른다면 그리스인이 노예가 되고 이국인이 주인이 되는 것 역시 관습의 차이일 뿐 동등한 정당성을 가진다는 주장이 가능하게 된다. Delacampagne는 그리스인을 노예로 전락시킬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주장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위협을 느꼈기에 자연적 노예를 주장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나는 이것이 지나친 억측이라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적 노예 이론이 제시되는 『정치학』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폴리스 안에서만 가능한데, 이 폴리스의 시민들은 정치와 행정 등에 참여하고 철학을 탐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여가란 추가분의 노동력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제공할 노예가 필수불가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와 관련된 주장은 시민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폴리스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제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이와는 거리가 먼 듯하다. 그가 『정치학』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말하듯이,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할 이를 노예로 삼는 것은 부정의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당시 아테네에서는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거나 난파된 배의 승객을 노예로 삼는 일이 가능했는데, 이들이 본디 노예가 될 만한 자가 아니라면 노예로 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다. 가까운 예를 우리는 플라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위작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플라톤의 생애를 가장 잘 전달해주는 「일곱 번째 서신」에 따르면 플라톤은 배가 난파되어 몸값을 치른 후에 자유를 되찾았다고 한다. 플라톤 같은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롭다고 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지 힘에 근거한, 예를 들어 전쟁포로이거나 혈통의 문제로 노예가 된 이들 이외에, 자연적으로, 즉 본성상 노예가 됨이 정당한 노예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 노예를 굉장히 다양한 말로 표현하는데, 가령 “영혼을 가진 소유물”(Pol 1253b33)이라거나 “활동을 위한 보조자”(Pol 1254a9), “자연적으로[본성적으로] 타인에게 속한 자”(Pol 1254a16), “그 기능이 신체의 사용이며 그로부터 최선의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자”(Pol 1254b18), “스스로 이성을 갖지는 못하지만 이성을 파악하는 한에서 이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Pol 1254b22-4)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노예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은 모두 [자연적]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노예는 지배받는 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까닭은 우월한 것이 열등한 것을 지배함이 정의롭기 때문이다. 이는 분배적 정의에 따른 것인데, 간단히 말해서 분배적 정의란 각자가 지닌 가치에 따라서 가치에 맞는 몫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주인이 노예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기에, 가치의 차원에서 열등한 노예가 주인의 지배를 받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된다. 그렇다면 자연적 주인과 자연적 노예를 구분하는 가치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우선적으로 ‘신체’를 들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1254b27-32에서 주인과 노예의 신체상의 차이에 주목하는데, 자연이 주인과 노예의 육체의 목적을 다르게 설정하였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노예에게는 강건한 육체를 주고 주인에게는 올곧은 자세[육체]를 세워 폴리스에 이바지하게끔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체’라는 기준은 주인과 노예를 구분하기에 효과적인 기준은 아닌 듯하다. 노예라 하더라도 반드시 강건한 육체를 지니지 않았을 수 있고 주인의 경우에도 반대의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이소포스[이솝]나 에픽테토스의 경우, 이들은 분명 사회적으로 노예의 상태였지만 그 육체가 노예의 삶보다는 주인의 삶에 더 적합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었던 듯하다. 신체가 주인과 노예를 나누는 구분점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을 뿐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종종 그 반대의 것[자연의 의도에 반대되는 것]이 일어나기도 한다. 즉 어떤 사람은 자유민[주인]의 신체를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노예]은 [주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Pol 1254b31-2) 자연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때때로 실수를

범할 수 있기에, 간혹 아이소포스의 경우처럼 노예이면서 주인의 영혼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노예와 주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답은 인간 영혼의 능력인 ‘숙고’이다. 노예는 이 숙고를 전적으로 갖지 못하기에 영혼의 능력에서 주인에 비해 열등하다. 반면에 여자와 아이는 숙고를 온전한 형태로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유하고 있기는 하다는 점에서 노예와 구분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노예는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적 동물로 인간 영혼은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I 권 13장에 따르면, 이성이 없는 부분은 식물적인 부분으로 성장과 같이 이성의 명령 없이 작용하며, 이성의 명령에 좀처럼 따를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이성적 부분은 그 자체 내에 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성적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 양자 사이에 끼인 영혼의 한 부분이 존재하는 데, 욕구적인 부분이 그것이다. 영혼의 이 부분은 그 자체로 이성적인 것은 아니며 대체로 이성에 저항하기도 하지만, 이성에 의해 설복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이성적 부분으로 간주된다. 인용문의 설명처럼 노예는 이성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성에 설복당할 수 있는 욕구적인 부분을 갖기에, “이성을 파악할 수 있는(aisthanesthai) 그런 한에서 이성에 참여”(Pol. 1254b23)할 수 있고 그렇기에 주인과 더불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자연적 노예는 단순히 이론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 듯한데, 자연적 노예가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물음에서 대다수 등장하는 답변이 『정치학』 VII권에서 제시되는 두 외국인 집단, 즉 유럽인과 아시아인들이기 때문이다.<sup>7)</sup> 외국인을 지칭하는 그리스어는 barbaroi인데, 이 말은 그리스인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중립적으로 부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 아니라, 상위 문화의 언어인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여 표현한 말이다. 현대의 예를 들면 서양인들이 동양인, 특히 동북아시아인들에 대해 ‘칭챙총’이라 칭하는 것이 적절한 예일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기 그리스인들의 문화적 우월감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리피데스의 말을 인용하며 “헬라스인들이 비헬라스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주 그럴듯하다.”(Pol 1252b8)고 말하기도 한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현대인인 우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적 노예 이론은 지적 능력의 우월성 또는 문화적 우월성에 기반한 타인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sup>8)</sup> 아리스토텔레스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렇지 않은 듯하다. 실제로 그의 스승인 플라톤 역시 이와 비슷한 생각을 『법률』에서 제시하는

7) cf. Pol. 1327b24-9 “추운 지역에 있는 민족들, 특히 에우로페(유럽)의 민족들은 기백(thumos)은 충만하나 지성(dianoia)과 기예(techné)에서는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비교적 자유로움을 지속할 수는 있으나, 비정치적(apoliteuta)이고 자신들의 이웃을 지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시아의 민족들은 지성적 영혼과 기예에서는 숙련되어 있으나, 기예(thumos)는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지속적으로 지배당하고 노예로 머무는 것이다.”

8) 물론 이와 반대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정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현재 논의에서 벗어나는 문제이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cf. NE 1161b2-8.

데, 그에 따르면 그리스인이 이국인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리스인이 노예 상태로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9)</sup> 이런 점에서 볼 때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노예제는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라 생각했으리라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예에 대한 견해는 초기 기독교 당시까지 전달되는 듯하다. 실제로 바울과 동시대 유대인 알렉산드리아의 필론<sup>10)</sup>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유사한 입장을 전개하고 있기에 초기 기독교 당시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과 유사한 견해 또는 생각이 지식인 혹은 지배계층 내에 만연했으리라 짐작해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 4. 로마의 노예제와 노예 해방

로마의 노예제의 경우도 앞서 그리스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좀 더 체계화 된 것도 사실이다. 이는 기원전 2세기 초부터 로마의 영토확장으로 인해 발생한 어마어마한 수의 전쟁포로들이 노예가 됨으로써 노예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로마인들에게는 전쟁포로 이외에도 노예를 수급할 수단이 존재했다. 그리스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노예 전문시장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 내에서 전쟁 포로 이외에 인간이 노예가 될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인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 Westermann은 여섯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부모가 노예일 경우 탄생의 순간 노예가 되고, 원치 않은 아이를 죽이고자 실시한 영아 유기시 영아가 죽지 않고 발견된다면 구조자의 노예가 된다. 또 재물을 목적으로 팔린 아동의 경우 노예가 되었으며, 가까운 지역에서 먼 곳으로 팔리는 노예도 있었고 가난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복종하기로 하는 경우와 법적 처벌에 의해 노예가 될 수 있었다.<sup>11)</sup>

로마 제국 내에서 노예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가내에서 의사, 안마사, 요리사 등등의 특정 영역을 도맡는 경우도 있었으며, 명문가의 경우 글자를 읽을 줄 아는 노예의 경우 회계나 비서, 가정교사 역할을 맡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고대 그리스 사회와는 다르게 로마 사회에서는 비록 신분은 노예일지언정 노예의 사회적 활동 영역은 다소 넓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로마 제국은 노예의 노동력에 의해 유지되던 사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노예가 중요 노동력이었던 만큼 로마 제국은 노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려는 정책을 펼쳤다. 그리스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예를 재산으로 여겼던 로마인들은 노예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주로 폭력과 처벌에 의지했다. 법적 권리가 없었던 만큼 노예는 주인의 처벌에 대해 법에 의한 아무런 보호

9) Law 469c 참조.

10) Peter Garnsey(1994), "Philo Judaeus and Slave Theory," *Scripta Classica Israelica* 13, 30-45, 36, 41-43 참조.

11) William L. Westermann, *The Slave Systems of Greek and Roman Antiquity* (Philadelphia: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55), 84 참조.

를 받을 수 없었다. 이때 주인이 노예에 대해 갖는 권리는 미성년 아들에 대해 아버지가 행할 수 있는 권리와 동일한 절대적 권리로 고대 가부장제도 내에서 가장이 지닌 전권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따라서 주인은 노예에 대해 무한정한 처분 권한이 있었고 주인의 성향에 따라 노예에 대한 처우가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노예의 주인은 노예에 대해 사형집행권 또한 지녔는데, 이 역시 가부장의 전권 중 하나였다.<sup>12)</sup> 다만 노예에 대한 사형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주인이 이를 이 권리를 빈번하게 사용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이는 인본주의에 기인한 행위는 아니었으며, 노예 역시 주인의 재산이기에 주인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노예의 노동력을 잘 보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노예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대체로 주인의 의한 가혹한 처벌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스의 경우에도 노예의 해방이 있었지만, 로마의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노예의 해방이 가능해졌다. 해방만이 세습되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노예 해방에는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막대에 의한 해방’(manumissio vindicta)으로 재판관을 흉내내어 시민이 재판관과 주인과 노예 앞에서 막대로 노예의 머리를 건드리며 노예의 해방을 선언한다. 이 과정에서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 주인은 노예가 실수로 노예가 되었음을 주장해야 한다.<sup>13)</sup> 두 번째 방법은 ‘유언에 의한 해방’(manumissio testamento)이다. 이 방법을 통해 노예는 주인이 죽었을 때 해방을 획득할 수 있다. 물론 주인이 노예를 아무런 이득 없이 해방시킨 것은 아니다. 비록 주인 자신은 아무런 이득을 얻을 수 없겠지만, 주인의 상속자가 노예를 통해 특정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sup>14)</sup> 세 번째 방법은 ‘호구조사에 의한 해방’(per censu)으로 주인이 자신의 노예를 호구조사 대장에 등록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sup>15)</sup>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단순히 노예가 자신의 자유를 금품을 주고 주인으로부터 사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사회와는 달리 로마 제국 내에서는 노예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노예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노예는 자신의 자유를 돈을 주고 주인으로부터 사고 주인은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금전적 이득을 통해 주인은 새로이 노예를 구입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다.<sup>16)</sup>

물론 자유가 곧 시민권의 획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예신분에서 해방되었다 할 지라도 자유인 이성과 내연 관계는 허용되나 합법적 결혼은 불가능고 이전 주인을 후원자로서 존경해야 했기에 재판 등에서 권리가 제한되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이전 주인에게 은혜를 갚아야 했고 공직 선출에 제한이 있었다는 점에서 노예 신분을 완전히 지워

12) Laub(1988), 16-17 참조.

13) Catherine Hezser, *Jewish Slavery in Antiquity*, (New York: Oxford, 2005), 305-306 참조. ; Delacampagne(2015), 98 참조.

14) Hezser(2005), 306 참조.

15) Delacampagne(2015), 99 참조.

16) Keith Hopkins, *Conquerors and Slaves* (New York: Cambridge Press, 1978), 118 참조. ; Delacampagne(2015), 98 참조.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세 세대가 지나야 했다.<sup>17)</sup>

이와 같은 고대 로마제국 내 노예에 대한 분위기는 초기 기독교 당시에도 유지되었다. 사도들이 노예제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적어도 노예제는 그들의 눈 앞에 펼쳐진 현실이었다. 따라서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그것을 비유로서 사용하건 아니면 현실 노예에 대해 이야기하건 간에, 노예를 소재로 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 특이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고 이는 바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5. 「빌레몬」서에 나타난 노예 오네시모와 바울의 대응

바울의 노예관을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가 노예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의 비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현실 노예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의 비유인지를 파악하는 일부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다.<sup>18)</sup> 이런 점에서 「빌레몬서」는 바울의 현실 노예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기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빌레몬서」가 실제 노예였던 오네시모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를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로 보는 데 일종의 합의가 있어 왔다.<sup>19)</sup>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주인 빌레몬에게 어떤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도망쳐 바울에게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18절과 19절의 내용을 토대로 추측해 보건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sup>20)</sup>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한은 절대적인 것으로 처벌을 넘어 사형의 권한까지 있었기에 잘못을 저지른 오네시모가 처벌이 두려워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을 것

17) Joseph Francis Super(2013), "Slavery and Manumission in the Pre-Constantine Church," *Eleutheria* 2(2), 7 참조 ; Delacampagne(2015), 100-101 참조.

18) Byron은 「빌레몬서」와 「고린도전서」 7장 21-23절을 제외한 나머지 바울서신에서의 노예제는 은유(metaphor)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John Byron(2004), "Paul and the Background of Slavery : The Status Quaestionis in New Testament Scholarship", *Currents in Biblical Research* 3(1), 121 참조.

19)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오정환은 그의 글에서 오네시모의 정체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중 첫 번째 견해는 앞서 이 글에서 소개한 견해와 같다. 나머지 세 경우는 순서대로 오네시모가 바울을 위해 공동체로부터 파견된 노예이며,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빌레몬과 그의 신앙 공동체에 의해 보내진 인물로 오네시모를 파악한다. 또 다른 견해는 오네시모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것도 바울에게로 파견된 것도 아닌 단순히 주인과의 사이가 멀어진 노예라고 보는 견해이다. 마지막 견해는 오네시모를 빌레몬과의 혈육 관계에 있는 형제 관계로 보는 견해이다. 오정환(2016), 「빌레몬서에 나타난 오네시모의 정체성에 대한 바울의 이해 연구」, 『신학지남』 83(2), 304-306 참조. 이외에도 Nordling에 따르면 Knox의 견해를 소개하며, 전통적인 해석에 반대하며 「빌레몬」서 어디에도 오네시모가 도망 노예임을 확인할 수 없음을 근거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화해를 위해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주장한다. John G. Nordling(1998), "Christ Leavens Culture: St Paul on Slavery," *Concordia Journal* 24(1), 97-99 참조.

20)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 1:18-19)

이라 추측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서」 이외에도 「골로새서」 4장 9절에도 등장하는데, 「골로새서」가 골로새 지방에 살았던 아킵보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빌레몬 역시 골로새 지방에 살았으며,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방에서 바울이 있는 곳으로 도망 왔으리라 추측하는 것은 꽤나 합리적인 일일 것이다.<sup>21)</sup>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고자 원했으나 빌레몬의 권리를 존중하여 우선적으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다시 되돌려보내줄 것을 원한다고 간청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을 덧붙인다.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몬 1:16-17)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먼저 빌레몬의 주인된 ‘권리’를 인정하여 오네시모를 되돌려 보낸다. 또한 인용문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대함에 있어 마치 자신을 대함과 같이 대해줄 것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그를 해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사회적 노예제를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22)</sup> 만일 바울이 노예제를 부당하다고 여겼거나 사회적 노예제도를 거부했다면, 오네시모의 처우를 빌레몬에게 맡길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더 나은 처우가 아닌 해방을 요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바울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마 22:21) 바치는 것이 옳듯, 교권과 지상권의 분리가 타당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력이란 존재할 수 없기에<sup>23)</sup> 모든 인간은 기존의 권위에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sup>24)</sup>

이처럼 바울이 현실적으로 사회적 노예제도를 수용하고 있다면, 노예인 오네시모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존재로 대우받아야 하는가? 바울이 오네시모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분명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있어 보인다. 바울은 빌레몬을 가리키며 직관적으로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개념을 제시한다. 바로 아들(*tektōn*)과 형제(*adelphos*)가 그것이다. 바울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오네시모를 “간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표현하고 자신이 형제라 부르는(몬 1:7)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우할 것을(몬 1:16) 권고한다. 이상의 바울의 주장을 살펴보면 바울과 빌레몬이 형제이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바울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바울의 형제가 된다.

21) Super(2013), 7-8 참조.

22) Peter Garnsey(1994), “*Ideas of slavery from Aristotle to Augustin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76 참조.

23) cf. (롬 13:1-2), (베전 2:18-19), (엡 6:5-7), (딤후전 6:1-2)

24) Delacampagne(2015), 114-5 참조. 이와는 반대로 오정환은 로마의 노예제에서 노예의 해방이 가능했고 또 해방 이후에도 노예와 주인이 후견인 제도라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해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빌레몬으로서도 큰 무리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덧붙인다. 그는 빌레몬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 확신한 21절을 근거로 오네시모의 신분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이후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울의 요구는 노예의 해방이라는 사회적 측면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기거하는 공동체적 측면에서의 대우를 요구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이다. 오정환(2016), 311-312 참조.

분명 한 사람이 누군가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그의 형제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형제와 아들은 다소 다른 의미로 혈연이 아닌 다른 의미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여기서의 형제와 아들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을 가리키는 분명해 보인다. 이에 더해 아들이 의미하는 바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랍비들 사이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서술하기 위한 은유로 사용되었듯이,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일종의 스승과 제자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sup>25)</sup> 둘째로 바울을 통해 오네시모가 회심에 이르렀기에 바울이 자신이 회심시킨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아들이란 표현을 사용했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영적 해산의 고통을 통해 이전의 오네시모로부터 그리스도인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바울의 ‘아들’이란 표현에는 세 가지 의미가 모두 중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형제 개념의 경우 오네시모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관점에서 오네시모가 도망 노예의 신분인 것은 바울도 빌레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맞아줄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어떤 면에서 현실적 사회제도인 노예제를 뛰어 넘은 새로운 시각으로 오네시모를 보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아마도 Laub의 주장처럼 바울이 새로이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를 자신의 형제로서 빌레몬에게 새롭게 소개하고 또 오네시모를 마치 ‘자기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간주하게끔 노력한 까닭은 인간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회적 한계를 초월하여 작용함을 예증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sup>26)</sup>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노예 오네시모의 해방이나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는 「빌레몬서」 어디에서도 노예 제도의 제도적인 측면이나 고난뿐인 노예의 삶을 논의의 주제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27)</sup> 이는 그가 당시 로마 사회를 이루고 있던 노예제도를 수용하고 용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울이 노예제 폐지에 소극적이었던 까닭은 아마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노예제 폐지를 지지할 정치적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더해 교권과 지상권의 분리를 명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인간은 기존의 권위에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 바울의 입장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와 관계없이 현 상태에 머무르며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충실히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노예인 오네시모를 자유인인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대한다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의식과 태도를 지닌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의식과 태도가 노예제 폐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5) 오정환(2016), 317 참조.

26) Laub(1982), 102 참조.

27) Laub(1982), 99 참조.

## 6. 나가는 말

나는 이 글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노예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 이론, 「빌레몬서」에 나타난 바울의 노예에 대한 대응 등을 살펴봄으로써 초기 기독교가 노예제 폐지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인적인 문제와 학적 능력의 부족으로 실상 글의 중요한 부분에서 엄격함과 정밀함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다소 장황하게 느껴질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적 노예 이론 부분은 바울과 동시대인인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의 노예관을 제시함으로써 1세기 로마 사회에서도 본성상 노예인 이들이 있다는 통념이 유지되고 있음을 자세히 보여야 했는데, 이 부분에서 꼼꼼하지 못한 듯하다. 여러 문제와 아쉬움들이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보완하기로 하고 이 글을 마무리하며 나름의 정리와 아직까지 머리 속을 멤도는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노예제에 의해 유지되던 사회로 노예가 사회 구성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은 시대였다. 이런 노예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사회 모두 비슷했는데, 전반적으로 노예는 개인의 소유물로서 법적 권리가 없는 재산으로 여겨졌다. 노예는 대체로 전쟁포로에서 기인하였는데, 그 신분은 세습되었으며 로마의 경우 노예 해방이 제도화되어 있었기에 고대 그리스 사회보다는 해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빌레몬서」의 저자는 노예의 해방과 노예제 폐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노예인 오네시모를 자신의 형제로 맞이한다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태도라 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인 노예제’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처럼 기독교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하다.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듯 노예제의 폐지를 주장한 이들은 에세네파밖에 없는 듯하며, 초기 기독교 사도 내지는 교부들에게서 이를 찾기란 어려운 일로 보인다.

선험 연구를 조사하며 기독교인이면서도 노예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지닌 이들의 견해를 접할 수 있었는데<sup>28)</sup>, 이는 무척 신선하게 다가왔다. 물론 그들이 자비로운 노예제를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이 글의 탐구가 적절했다면, 기독교는 노예제 폐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교권과 지상권의 분리를 근거로 노예제를 공고히 할 배경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노예로 대하면서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로 대해야 하는가? 시대적 정황을 제쳐두고서 노예제라는 테제 앞에서 기독교인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28) Willard M. Swartley(1983), *Slavery, Sabbath, War & Women-Case Issues in Biblical Interpretation*, 황의무 옮김(2020), 『여성, 전쟁, 안식일, 노예제도』 논산 : 대장간. 34-42를 참조하라.

## 참고문헌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상진 외 옮김(2013), 서울 : 도서출판 길.  
\_\_\_\_\_, 『정치학』, 김재홍 옮김(2017), 서울 : 도서출판 길.  
오정환(2016), “빌레몬서에 나타난 오네시모의 정체성에 대한 바울의 이해 연구”, 『신학지남』 83(2), 297-323.  
오프리트 회페, 『우리시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주광순 옮김(2019), 서울 : 시와 진실.  
플라톤, 『법률』, 박종현 옮김(2009), 서울 : 서광사.  
Catherine Hezser(2005), *Jewish Slavery in Antiquity*, New York : Oxford  
Christian Delacampagne(2002), *HISTOIRE DE L'ESCLAVAGE*, 하정희 옮김(2015), 『노예의 역사』, 고양시 : 예지.  
Franz Laub(1982), *Die Begegnung des frühen Christentums mit der antiken Sklaverei*, 박영욱 옮김(1988), 『고대 노예제도와 초기 그리스도교』,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Joseph Francis Super(2013), "Slavery and Manumission in the Pre-Constantine Church," *Eleutheria* 2(2), 1-15.  
John Byron(2004), "Paul and the Background of Slavery : The Status Quaestionis in New Testament Scholarship", *Currents in Biblical Research* 3(1), 116-139.  
John G. Nordling(1998), "Christ Leavens Culture: St Paul on Slavery," *Concordia Journal* 24(1), 97-119.  
William L. Westermann(1955), *The Slave Systems of Greek and Roman Antiquity*, Philadelphia :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Willard M. Swartley(1983), *Slavery, Sabbath, War & Women—Case Issues in Biblical Interpretation*, 황의무 옮김(2020), 『여성, 전쟁, 안식일, 노예제도』 논산 : 대장간.  
Peter Garnsey(1994), "Philo Judaeus and Slave Theory," *Scripta Classica Israelica* 13, 30-45.  
\_\_\_\_\_, *Ideas of slavery from Aristotle to Augustin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